

### 1. 이끄는 글

지금 이 지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世界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안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의 환경문제가 현재 전세계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종교인이나 환경운동가들의 공로가 아니다. 지구적 환경파괴로 인해 죽어갔고 또 지금도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 크게 보아 우리의 동포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울부짖는 탓이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절실히 회개하고 참회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고 자신의 그릇된 삶의 형태를 깨달아 고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만이 참



장택희 / 원불교환경연구회장, 아주대강사

## 원불교의 교리와 오늘의 환경문제

프레온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는 프레온가스를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석탄, 석유의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지구기온의 상승, 기후의 변동은 원자력으로 대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선전하기까지 한다. 지구 한쪽에선 ‘중독’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에너지의 남용, 아니 미친 듯한 퍼버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여러곳에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식수와 식량)가 부족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두 사건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과거에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가?

이글에서는 원불교의 기본교리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의 환경파괴를 살펴보고, 원불교의 교리로부터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논의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모든 종교가 저마다 자신들의 교리로 현재의 지구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어쩌면

다른 해결책이 찾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상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1891~1943)은 자신이 직접 지은 원불교의 경전인 正典중의 ‘개교의 동기’에서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오.”라고 갈파하고 있다. 지금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당시(1916~1943)의 과학문명의 발달을 관찰하고 그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도리어 큰 고통(물질의 노예생활, 파란고해)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즉 지구온난화에 의한 위험, 오존층파괴로 인한 백

“ 검소와 절약은 이제 더이상 권선적인 사람들의 일시적 행태가 아니다.  
 조각종이 한장과 토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곤하나라도 할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아껴쓰셨다는 소태산의 행동은 그 당시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환경운동가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내장, 피부암환자의 증가와 생물의 유전자 변이가  
 능성, 도시의 대기오염, 삼림파괴로 인한 산소의 부  
 족, 열대림파괴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파괴, 기상이  
 변에 의한 홍수, 표토유실로 인해 가속화되는 사막  
 화, 식량문제와 기아의 급증 등등의 일들은 ‘파란  
 고해’라고 표현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  
 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말한다.

즉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체생명을 광대무량  
 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수레의 두바퀴로써 ‘진리  
 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하  
 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중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대상으  
 로 제시된 四思, 즉 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의 네가지 은혜를 살펴보겠다.

소태산은 ‘나’라는 존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모  
 든 관계를 私的관계로 파악한다. 즉, “없어서는 살  
 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으로 天地, 父母, 同胞, 法律의 네가지를 들고 각각  
 에 대하여 피은된(은혜를 입은) 조목을 밝혀주고  
 있다.

천지피은의 조목을 보면 하늘의 공기로 인해 호  
 흡할 수 있고, 땅의 바탕으로 인해 형체를 의지하  
 고 살게되었으며, 日月의 밝음으로 인해 삼라만상  
 을 분별하여 알고, 風雲雨露의 혜택으로 만물이 장  
 양되어 그 산물로써 우리가 살게되었다고 한다.

부모피은의 조목으로는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주셨고, 모든 사랑으로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하심  
 을 들고 있다.

동포피은의 조목에서는 士는 모든 학술과 정사  
 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었고, 農은 우리의 의  
 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工은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商은 천만물질을 교환  
 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주었으며 금수초목까지  
 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법률피은의 조목으로 첫째, 때를 따라 성  
 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  
 (正路)를 밝게 하여 주심이요, 둘째, 사·농·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전면에 전력하여 우리  
 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세  
 째,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이와 같이 四思에 의해 피은된 바를 정확히 알고  
 보은하는 것은 人間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四思의 각각에 대하여 다시 보은의 강령과 조목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지만 세세한 조목은 여기서 생  
 략하기로 한다.

소태산이 제시한 四思에 대한 배은의 결과를 세  
 밀히 살펴보면 현재의 세계를 너무도 정확히 예언  
 한 것만 같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구적 환경파괴의 현상은 바로 천지배  
 은의 결과에 제시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단순  
 히 환경파괴의 예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생명경시풍조나 사회적 혼란,  
 배금주의에 의한 온갖 탐욕과 구조적 불평등, 폭력,  
 도덕과 윤리의 타락, 인간소외, 전쟁, 테러, 마약 등  
 등이 모두 四思에 대한 피은, 보은을 알지 못한 배  
 은의 결과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  
 는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인 것이다.

### 3. 대안으로서의 삼학공부

소태산은 ‘개교의 동기’에서 일체생명을 건지는



수레의 다른 바퀴로써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바로 삼학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바로 그것이다.

일체생령은 어느 것이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며,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그중에 특히 인류는 다른 생령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여 왔는데 특히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지만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소태산은, 회령한 인간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배이상 이 되므로 아무생각없이 그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고,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계하면서 이와같이 천지만업으로 벌여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수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종교에 있어서 기도, 심고, 염불과 좌선, 주문 등의 수양방법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이거나 전인류가 나름대로 정신수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필자 역시 주장하고 싶으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

는다.

그렇다면 정신수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물론 그럴리가 없다. 현재의 환경파괴는 산업혁명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원인과 결과가 매우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문명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재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멈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대와 같이 기업이나 그밖의 소수집단을 위해서는 무엇이랄도 할 수 있는 듯한 과학으로부터 전인류와 금수초목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탁월한 의미의 과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하는 기술이 이 시대의 전생령들과 앞으로의 미래세대의 전생령들을 생각할 때도 탁월한 기술인지를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온갖 신기한,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의 개발이 전쟁억제력이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도 드러내어놓고 생각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실천(작업취사)이 없다면 세계가 변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소태산은 “우리 인류가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나뉘를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며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거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고 호소한다. 지금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모습을 반로하여 보라.

자신의 일시적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주위에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쓸만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물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버려지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구의 부존자원을 생각하고 자신의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그 뻔한 결과를 우리는 편리에 중독된 습관때문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자신의 우선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모순-각종 물질들의 리사이클링에서 발생하는 병목(bottle neck)현상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만이 근본적인 해답이 찾아질 것이다. 검소와 절약은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이고 소심한 종교가들의, 혹은 위선적인 사람들의 일시적 행태가 아니다. 조각종이 한장과 토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아껴쓰셨다는 소태산의 행동은 그 당시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환경운동가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

#### 4. 마치는 글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현재의 지구적 환경파괴와 나아가 모든 사회의 병리와 함께 원불교의 기본교리인 四思과 三學과를 연관지어 설명해 보았다.

산업혁명이후 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지구의 환경파괴와,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 국내, 국외의 환경오염의 소식들은 자칫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과 자포자기로 끝기까지 한다. 그러나 다행히

도 소태산이 바라보는 미래는 대단히 밝다.

소태산은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꼭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오”(전망품 19장)라고 말하고 ‘병든 세상과 그 치료법’에서 세상이 병들어 가는 증거를 제시하며 그 치료법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병든 사회의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요, 부정당한 의뢰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써 교화를 잘 할 것이며,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利他)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